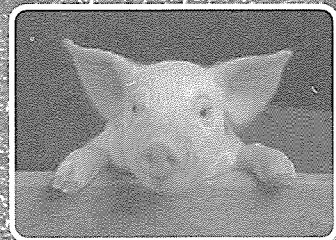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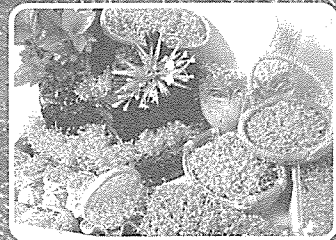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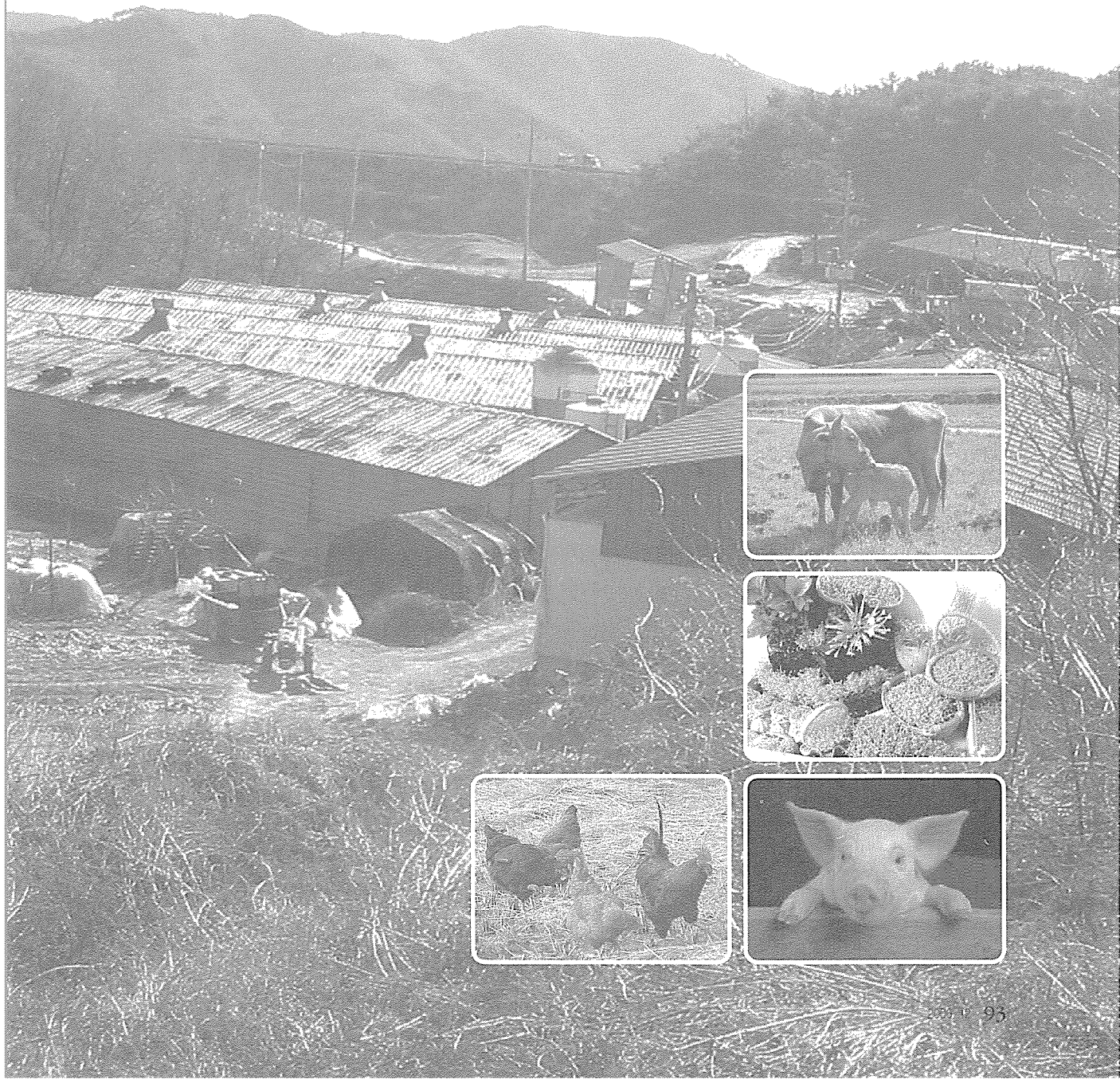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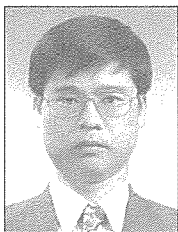
News 3

유기축산의 현황 및 과제





Planning special [3] 기획특집



이흥철 사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관리팀

1. 서론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축산물과 같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량은 현재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 기준 약 79만톤이 생산되어 전체 생산물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0~40%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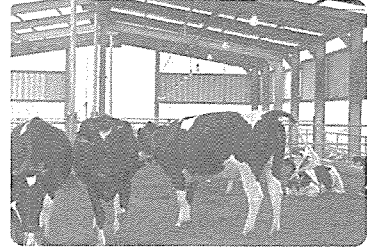
유기축산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국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축산업 분야에서도 환경오염 문제 가중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은 규모이지만 친환경 유기축산의 도입은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2. 유기축산이란

일반적으로 유기축산이란 농업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토양생태와 연계된 가축사양을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가축을 생산하는 체계와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질의 사료 제공, 적절한 사육공간 확보, 가축의 생

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 체계 유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가축의 건강증진·복지를 증가시키고, 질병 등에 화학적인 가축약품(항생제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축관리를 말한다.

그러나 유기축산물이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받으면 정작 명료하고 구체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 물론 유기축산 인증기준이 '01.7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지만, 유기축산은 개념적·사전적 의미보다는 실천적이고 실험적 요소의 비중이 높아 언어로만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 점도 있다. 또한 유기축산의 '유기'라는 용어에 대하여 화학물(Chemical)의 반대개념이나 화학적 요소가 배제된 유기물(organic compounds)의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원래 유기축산의 개념은 공장과 비슷한 농산물 생산시스템인 공장형축산(Factory Farming) 즉, 공장과 같은 축사시설,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원자재와 같은 사료·약품,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와 같은 가축, 공장폐수와 같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물 생산체계의 반대 개념을 뜻한다.

공장형 축산이 사육장 및 주변환경 오염, 가축의 건강 및 축산물의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축산이 사회적·생태학적·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생리적 욕구에 맞는 사양관리체계로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여 외부에서 도입되는 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료는 농장내에서 자가생산하여 급여하고 축산분뇨는 사료포장에 필요한 비료로 활용하는 농장내에서의 유기적인 농업생산체계(Organic Farming)를 도입하게 되었다.

3. 유기축산 현황

1) 유기축산 인증현황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은 '05년부터 인증이 시작되어 2006.9월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이 36건, 전환기유기축산물 인증이 2건으로 38건 인증되었으며, 인증대상 축종별로 한우우가 4건, 젓소 5건, 돼지 5건, 산란계 12건, 육계 11건, 산양 1건으로 양계가 가장 많이 인증되었다. '05년 18건의 인증이 '06.6월 현재 35건으로 94% 증가하고 인증품 출하실적도 '05년 256톤인 것이 '06.9월 현재 1,171톤으로 357% 증가하는 등 유기 및 전환기유기축산 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유기축산 인증현황

인증종류		축 종						계
유 기	전환기유기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산양	
36	2	4	5	5	12	11	1	38



2) 인증기관 지정현황

유기축산물에 대한 인증은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중심으로 농관원이 지정한 친환경 전문인증기관 21개소에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이관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전문인증기관은 전문인증회사, 대학, 영농 조합법인, 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3) 유기배합사료 수급현황

국내 유기배합사료는 3개 제조업체와 1개 수입업체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다. 유기배합사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림산물의 재배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 80~100% 수준으로 배합·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다.

표 2. 유기배합사료 수급현황

(단위: 톤)

업체명	여주자연농고	이레식품	농협안성목장	IMB 사료	합 계
2005년	761	102	302	438	1,603
2006년(1~9월)	1,411	737	258	2,200	4,606

4) 유기축산물의 기준

유기축산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6의 인증기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유기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유기축산물의 기준

구 분	분 야	관행축산	유기축산
시설 / 환경	축사면적	• 밀집사육가능	• 축종별 사육밀도 기준 준수
	축사바닥	• 톱바닥, 시멘트바닥, 깔짚 등	•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한 깔짚축사
	분뇨관리 · 처리	• 정화 · 자원화 방법 • 축사면적에 준한 처리시설 마련 (축산관련법 및 오분법에 준함)	• 퇴비 및 액비 등 자원화를 근간으로 한 처리 방법 • 축산관련 및 오분법 준함(동일)
	축사시설	• 제한사육 가능 • 계류사육 가능	• 자유로운 행동 표출 및 운동이 가능해야함 • 군사원칙 • 가금의 경우 햇대, 산란상자 마련 • 자유급이 시설 마련
	방목지/운동장시설	• 규정사항 없음	• 돼지, 양계 규정사항 없음 • 단 소의 경우 축사면적의 3배

구 분	분 야	관행축산	유기축산
가축관리	전환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축종별 전환기간 준수
	가축번식	• 규정사항 없음	•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 권장 • 인공수정 허용 • 수정란 이식, 호르몬, 유전공학기법은 허용 안됨
	사료/영양	• 비유기 사료 급여 허용 • GMO사료원료 사용가능 • 항생제 허용 • 성장촉진제 허용 • 호르몬제 허용	• 유기사료급여(80% 이상) •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첨가 허용 안됨 • 합성, 유전자 조작 변형물질 허용안됨 • 국제식품 위원회나 농림부장관이 허용한 물질 사용
	질병관리	• 구충제 사용 허용 • 예방백신 사용 허용 •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사용 허용	• 구충제 및 예방백신 사용 허용 • 대중요법을 이용한 환축치료 권장 • 정기적 약품투여,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허용 안됨 (환축의 경우 약품투여를 허용하되, 약품 투여 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
	사양관리	• 밀집사육 허용 • 격리사육 허용 • Cage사육 허용 • 거세 등 동물에 가해지는 물질적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 물리적 거세 허용 • 단미, 단이, 부리자르기, 뿔자르기 등 허용 • 밀집사육 허용 안됨 • 군사원칙 단, 임신말기 · 포유기간 예외 • Cage사육 허용 안됨. 단 자돈 제외 • 산란계의 경우 인공광 최대사용 기준(최대 14시간)

4. 유기축산의 의의

1)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다.

유기축산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조방적 사육관리를 유도하고 경종농업과 상호순환관계를 맺고 있어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2) 유기축산을 통해 생산된 축산물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가축에게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가축약품의 사용을 제한 하므로써 농약 및 항생제와 같이 유해물질이 잔류되지 않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HACCP 지정을 받은 도축 및 가공장에서 처리되어 소비단계까지 안전성이 유지된다.



3) 한 단계 성숙된 축산경영 마인드를 제공한다.

유기축산에서 가축은 인간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하는 동물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써 존중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보다 많은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가축에게 사료·약제를 무한정 투여하는 공장형 축산이 지양되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한 단계 높은 경영마인드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4) 우리 축산물의 관리수준을 Upgrade하는 축산물 관리방법(Tool)을 제공한다.

DDA나 FDA체결로 국제적인 축산물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에서도 신선한 상태로 축산물 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입 축산물과 무한경쟁이 시작된다면,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유기축산은 이러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유기축산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2003~2005년(3개년) 동안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유기축산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유기양계의 경제성을 보면, 일반산란계 사양농가는 연도에 따라 난가의 변동이 심하여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반면, 유기 산란계 사양농가는 계란 판매단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유기육계는 사육시 사료비, 관리비 등이 일반양계 사육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유기육계의 판매단가가 높아 수익창출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반양계도 불확실한 요소가 있겠지만, 아직 유기양계는 시작단계로 사료수급, 사양관리, 판매가격, 판매처 확보 등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5. 유기축산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사료의 확보문제

대부분의 유기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유기축산의 근간이 되는 유기사료의 수급문제는 유기축산물 생산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된다.

이러한 유기사료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로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과 유기배합사료를 기준마련 및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례로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기관이 농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은 농가가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유기배합사료 기준에 맞는지 사료관리법에 정한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련한 유기사료 확인 지침에 따라 옥수수, 밀, 대두박 등의 원료가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이거나 유기농산물에서 유래된 것인지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사료 샘플을 수거하여 배합사료내 유해물질, 항생제, GMO 혼입여부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외국과 같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가공품(사료)을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농가입장에서 볼때 사료심사를 위해 추가비용의 손실이 있으며, 제조업체는 해당 인증기관별로 매번 심사에 응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기배합사료의 확인제도를 간소화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유기배합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및 표시제를 도입하여 유기사료로 성분등록한 유기사료를 시중에서 농가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유기사료 확보에 대한 농가 부담이 상당히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유기축산 전환농가가 자급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초지 및 사료포를 조성할 경우「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사업비 지원 대상자 중 유기축산 전환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유기적 재배에 따른 사료 생산량 저하의 일부를 보조비를 상향을 통해 보전한다면, 유기사료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지역적 연계성 구축하는 방안이다. 「경농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의 사업대상자 범위를 사료작물재배 계약농가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와 같이 농산부산물을 유기사료 활용할 수 있는 유기재배농가로 확대한다면, 체계적으로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기축산물의 생산비 절감대책

유기축산물의 생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환경성, 안전성을 극대화 시킨 축산물 생산방법이긴 하지만, 높은 생산비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유기적 재배방법으로 옥수수를 생산할 경우 약 40~50%의 수확량 감소가 있어 사료비가 일반 축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축사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사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육두수를 감소시키게 되며, 동물용의약품 사용제한으로 가축질병 발생시 막대한 손실 발생할 수 있는 등 생산비가 일반 축산에 비하여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축산물 생산비 상승은 추후 생산물 판매가격을 높게 수취하므로써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또한 100% 보장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감축하는 생산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지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축산물 생산비를 감축하는 생산체계로는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이 유기농산물과 가축분뇨의 유기적 순환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내 농축복합경영체계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에 비중을 둔감이 있어 경종산물을 사료로 순환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직접지불의 방법으로는 유기축산 시행초기 사료비 부담과 시행착오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기축산으

로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유기축산 인증 농가에 대해 친환경직불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친환경축산을 이행하는 인증농가도 현 규정상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친환경축산 기본프로그램을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유기 및 전환기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은 농가는 친환경축산 기본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사업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기축산물의 가격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최초로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계란의 시중 판매가격은 개당 700원이나 되었다. 일반 계란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유기축산물을 선호하는 일부 구매력있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는 하였지만, 대중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양재동 하나로마트 방문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축산물의 적정 가격에 대해 설문을 조사를 한 결과 적정가격은 일반 축산물의 1.2~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기축산물이 10%가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기축산물의 가격이 일반 축산물 약 30%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적정가격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유기축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맺음말

유기축산이 우리나라 축산의 전반적이 트렌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축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축산이 아니더라도 농가가 스스로 목표로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축산업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변화를 생각할 때가 아닌 하는 생각을 해본다. ⑤

